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4년 3월 22일 금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강원도민일보	20면	도청 공무원 노조 출범	1
江原日報	27면	도청공무원 노동조합 출범식	1
G1방송	온라인	제 13기 도청 공무원노조 출범식 개최	2
강원도민일보	17면	[동정] 강정호(왼쪽 위)·원미희(오른쪽 위) 도의원·최종현(...	3
강원도민일보	15면	[동정] 지광천(위 왼쪽) 도의회 안전건설위 부위원장·최종...	3
강원도민일보	17면	[동정] 진종호(양양) 도의원	3
강원도민일보	17면	[동정] 이지영(비례) 도의원	3
강원도민일보	16면	[동정] 노이엽(왼쪽) 화천군의장·박대현(화천) 도의원	4
강원도민일보	15면	[동정] 김기철(왼쪽) 도의회 경제산업위원장·송수옥 정선...	4
江原日報	27면	[동정] 최승준 정선군수(사진 왼쪽)·김기철 도의회 경제산...	4
江原日報	06면	김진태 도정 조직 개편 'SOC·경제 드라이브'	5
江原日報	20면	태백 공공산후조리원 내달 첫 삽	5
강원도민일보	01면	윤석열 대통령 원주 방문	6
강원도민일보	02면	윤 대통령 "원주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거점 육성"	6
강원도민일보	04면	늘봄학교 도입 3주 '희망 학생 100% 수용·필요 교원 전원 ...	7
강원도민일보	09면	춘천 명물 후평·풍물야시장 잇따라 개장	8
강원도민일보	13면	삼척 수소특화산단 조성 탄력 기대	8
江原日報	06면	필리핀 상춘객, 양양공항 통해 강원도 온다	9
강원도민일보	14면	인제군 스포츠마케팅 지역경제 훈풍	9
강원도민일보	04면	강릉 오락가락 날씨에 꿀벌 60% 폐사... 양봉농가 시름	10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청년세대 의료교육 기회 더 넓히길	11
江原日報	25면	[사설] 의대 정원 증원, 지역의료 혁신 계기로 삼아야	12

강원도민일보

2024 03 22 ()

20



도청 공무원 노조 출범 도청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신성호)은 21일 도청에서 김진태 지사와 권혁열 도의회 의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현진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 13기 공무원 노조 출범식을 개최했다.

江原日報

2024 03 22 ()

27



도청공무원 노동조합 출범식 제13기 강원특별자치도청공무원 노동조합 출범식이 21일 도청 광장에서 김진태 도지사, 권혁열 도의장, 신성호 노조위원장 및 노조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박승선기자

2024 03 21 ()

G1방송

제 13기 도청 공무원노조 출범식 개최

이종우 기자 [jongdal@g1tv.co.kr]



강원자치도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오늘(21일) 도청 앞 분수 광장에서 제 13기 노조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출범식에는 도청 노조 조합원을 비롯해 김진태 도지사와 권혁열 도의회 의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현진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전국 시도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김진태 도지사는 "도민을 향해 노.사가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상호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원도민일보

2024 03 22 ()

17



강정호(왼쪽 위)·원미희(오른쪽 위) 도의원·최종현(왼쪽 아래)·정인교 속초시의원은 22일 오전 10시 속초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열리는 제9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4 03 22 ()

15



지광천(위 왼쪽) 도의회 안전건설위 부위원장·최종

수(위 오른쪽) 도의원·김성기 평창군 부의장은 22일 오후 4시 평창소방서에서 열리는 평창군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4 03 22 ()

17



진종호(양양) 도의원은 24일 오전 11시 속초생활

체육관에서 열리는 국제로타리 3730지구 4지역 체육대회 행사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4 03 22 ()

17



이지영(비례) 도의원은 23일 오전 10시 고성소방

서에서 열리는 제3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4 03 22 ()



노이엽(왼쪽)화천군
의장·박대현(화천)
도의원은 22일 오전
10시 화천여성회관에
서 열리는 제3회 의용

16

소방대의날 행사에 참
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4 03 22 ()

15

일 오전 11시 생태체
험학습장에서 열리는
정선 동강할미꽃축제
개회식에 참석한다.



김기철(왼쪽) 도의회
경제산업위원장·송수
옥정선군의원은 22일

江原日報

2024 03 22 ()

27



◇최승준정선군수(사진 왼
쪽)·김기철도의회 경제산업위
원장(정선)은 22일 오전 11시
정선읍 동강생태체험학습장에
서 열리는 2024 정선 동강할미
꽃 축제 개회식에 참석.

김진태 도정 조직 개편 'SOC·경제 드라이브'

올 7월 'SOC정책관' 신설 건설교통국 기능 강화 효율성 높여 GTX·고속도 등 현안 전담 ... 소상공인과 마련 경제정책 추진

급인 서기관이 많지만 실제로는 직 위승진을 통해 '준국장'으로 기용될 전망이다. SOC 핵심기능인 도로과, 철도과, 하천과, 교통과 등이 SOC정책관에 소속된다. 도정 핵심 공약을 비롯한 주요 현안의 상당수가 SOC에 집중돼 있는 만큼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기존 조직의 기능을 분화해 집중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건설교통국은 도정 내 실·국 가운데 가장 많은 8개과(課)와 1개 사업

소로 운영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선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줄곧 있었다. 이와 함께 도청 신청사 건립추진단은 토목 또는 건축 등 기술직렬 위주로 재편된다. 최근 중앙투자심사 통과로 행정절차를 대부분 마치고 6월부터 설계 등 본격적인 착공 단계에 접어들면서 단장 역시 기술직에서 맡게 될 전망이다. 일부 과들은 기능이 재편된다. 소

상공인회가 신설돼 주민체감도가 높은 경제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7월부터 도내 대학을 총괄하는 RISE센터가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에 신설되며 도청 과장급이 과견된다. 기존 교육법무과는 인재육성과로 재편될 예정이다. 강원자치도 관계자는 "철저한 성과 위주의 도정을 위한 조직 정비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기영기자 answer07@kwnews.co.kr

속보=강원특별자치도가 올 7월 민선 8기 김진태 도정의 반환점을 앞두고 'SOC정책관'을 신설하는 등 성과 중심의 조직정비(본보 지난 8일자 2면 보도)에 나선다. 남은 2년간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영월~삼

척고속도로, 제3차 국가지도도로망 구축 등 현안 사업에 총력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강원자치도는 22일 오후 상반기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한다. 핵심은 건설교통국 기능 강화 및 SOC정책관의 신설이다. SOC정책관은 과장

태백 공공산후조리원 내달 첫 삽

【태백】분만취약지인 태백시가 아이 낳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위해 황지동에 올 4월 공공산후조리원인 태백시 첫생명 맞이&아이키움센터를 착공한다. 50억원을 들여 내년 상반기 문을 열 예정인 공공산후조리원은 930㎡ 지상 2층 규모로 산모실 9실, 음압격리실 1실, 신생아실, 간호사실, 수유실, 식당, 사무실 및 프로그램실 등이 갖춰진다. 시는 또 올해부터 저출산 극

2층 규모 내년 상반기 개소 산모실·음압격리실 갖춰 난임 시술비 지원도 확대 복을 위해 소득과 관계없이 난임부부 시술비를 확대 지원한다. 4월부터는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과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필수

가임력 검진비 1회 지원이다.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냉동난자 해동 및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부부당 최대 2회 지원하는 내용이다. 2016년 7월부터는 지역 산부인과에 연간 5억원을 지원해 24시간 분만 의료체계도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 출산장려금으로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36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임신준비부부 건강체크

비용 18만원 지원과 출산산모 가정방문 도우미 서비스 제공, 임산부 신생아 출산지원금 등 22가지 각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지역경제 회복 및 인구 증가를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과 함께 저출산 극복을 위한 각종 산후돌봄 사업을 적극 추진해 자치만 사회복지가 강한 도시 태백을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광희기자

강원도민일보

2024 03 22 ()

01



윤석열 대통령 원주 방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원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스물두번째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행사장으로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윤대통령은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디지털 헬스케어·반도체 등 강원도 핵심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조하고 원주시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필요성도 언급했다. 서영 ▶관련기사 2·4면

강원도민일보

2024 03 22 ()

02

윤 대통령 “원주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거점 육성”

원주서 22번째 민생토론회

분양형 실버타운제도 재도입

GTX-D 노선 연장 지원 등 약속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 요양 등 노인돌봄서비스가 제공되는 중산층 대상 민간임대주택형태의 '실버스테이'를 도입하고 어르신 공공임대주택을 연 3000호까지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역현안과 관련, 원주를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고 광역수도권전철(GTX)D노선 원주연장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원주 소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열어 주거, 식사, 의료, 돌봄 등 어르신들의 삶과 밀접한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22번째 민생토론회를 주관한 윤 대통령의 강원도 방문은 지난 11일 춘천에 이어 10일만이며 아울러 3번째다. 윤 대통령은 이번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2015년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윤석열 대통령이 원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22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관한 21일 도내 한 대학병원 로비에 설치된 TV에서 대통령이 발언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다. 유희태

제도를 다시 도입해 입주자격, 위탁용 등 민간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운 제도를 개선, 실버타운 건설을 활성화시키겠다"며 "어르신 공공임대주택 보급을 현행 연 1000호에서 3000호로 늘리겠다"고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중산층 민간 임대나 리츠 등 기존에 없었

던 새로운 형태의 '어르신친화주택'을 도입하겠다"며 실버스테이와 헬스케어 리츠, 유닛케어 방식을 소개했다. 실버스테이는 동차 감지기, 단차 제거 등 어르신 특화 시설이 갖춰진 주택으로 의료, 요양 등 노인돌봄서비스가 제공되는 주거공간이다. 윤 대통령은 또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 요양시스템 구축방안으로 의사, 간호사가 집으로 방문하는 재택의료센터를 현재 95개소에서 전국 250개소로 대폭 확대하고 중증 환자의 방문진료비 환자 부담을 현재 3만8000원에서 절반 수준인 1만9000원으로 낮추겠다고 덧붙였다. 오

4월부터 요양병원 임원 어르신간병비 지원 시범사업도 도입한다.

윤 대통령은 "원주는 국내 유일의 자생적인 의료기기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했다"며 "원주가 보유한 풍부한 보건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강원 보건 의료 데이터 글로벌 혁신 특구'와 연계해 원주와 강원도의 보건 의료 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주고를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 교육의 질과 원주 혁신도시의 교육환경이 향상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위해 수도권광역철도(GTX)D노선의 원주연장을 재강조했다.

원주민생토론회는 실버타운 입주민 및 의료기기분야 기업인 등과 정부측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원광수 원주시장,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등이 참석했고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운 사회수석 등이 배석했다. 박창현 ▶관련기사 4면

강원도민일보

2024 03 22 ()

04

늘봄학교 도입 3주 '희망 학생 100% 수용·필요 교원 전원 채용'

**윤 대통령 원주 방문 점검·격려
도교육청 "안착 완료 2학기 전면 확대"
교육 현장 "미흡한 제도" 반발 여전**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원주 명륜초를 방문, 강원도내 늘봄학교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격려한 가운데 강원지역 늘봄학교가 희망학생을 100% 수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은 늘봄학교가 3주차에 접어들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입장이나 현장에서는 '미흡한 제도'라는 지적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윤대통령, 돌봄 교실 지원 약속

윤 대통령은 "명륜초등학교는 구도심에 있어서 지역의 자원이 부족함에 도학교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음악, 전래놀이, 생명과학, 컴퓨터, 미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격려했다. 이어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80% 이상이 늘봄학교에 참여하고 있다"며 "준비에 애써주신 교육감을 비롯한 현장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학교와 교육청, 지방과 중앙정부, 기업, 지역사회 등 모두가 협력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찾고 재능 기부도 많이 해달라"고 당부하며 정부지

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 이어 늘봄학교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을 참관했다. 윤 대통령은 전래놀이 교실에서 아이들과 짝꿍 술래잡기 활동을 함께했고, 음악 프로그램 교실에서는 소고와 캐스터네츠를 치며 노래하는 아이들의 연주를 격려했다. 늘봄학교 현장 방문에는 정부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신경호 강원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 동석한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은 "늘봄학교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의 위기를 극복할 조건"이라며 "도교육청은 늘봄학교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내 84개 학교 1학년 79% 참여

21일 본지 취재결과 올해 1학기 늘봄학교가 운영 중인 84개 학교 1학년 6675명 가운데 늘봄 프로그램 참가를 희망한 학생은 5275명 (79%)이다. 20일 기준 희망자 전원은 늘봄학교에 참가 중이다. 기간제 교사 역시 현재는 84명 모두가 채용된 상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늘봄학교

가 이미 현장에 안착했고, 전면 확대되는 2학기 역시 차질없이 사업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기간제 교사 가운데 초등교사 자격 소지자 (20명)보다 중등교사 자격 소지자 (64명)의 수가 많은 점은 교원단체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교사가 늘봄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점 역시 지적받고 있다.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인력 역시 강사를 100% 충원하지 못해 교사가 투입되고 있다. 프로그램 투입 강사는 총 568명이나 이 가운데 11.4%는 교원으로 집계됐다.

도내 한 초교 교장은 "현재 우리 학교에 채용된 늘봄 전담 교사는 중등 영어 교육 전공자인데 초등 과학을 가르치고 있다"면서 "교육부에서는 중등교원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도록 했으나 이는 초등교원의 전문성을 무시한 처사"라 비판했다. 이어 "우리 학교에 늘봄교실 신청 학생은 7명이었으나 이마저도 현재는 3명밖에 남아있지 않다"면서 "2학기 전면시행이 되면 작은 학교는 기존의 돌봄만으로 모든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늘봄교실을 도입한다면 예산 낭비가 될 것"이라 우려했다. 박창현·정민엽

강원도민일보

2024 03 22 ()

09

춘천 명물 후평·풍물야시장 잇따라 개장

내달 12일·5월3일부터 가동
먹거리·가족 체험행사 다채
시 “콘텐츠 개발 관광자원화”

춘천 대표 야시장이 내달부터 본격가
동된다. 후평야시장(후평어울야시
장)이 오는 4월 12일 문을 연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운영하며, 운영 기간은 9월
까지다. 야채밀쌈, 육회 도시락 등 다

양한 먹거리를 만날 수 있다. 올해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개장식
때마다 회용컵을 사용하고, 방문객들
에게는 ‘내그릇 사용’을 장려한다.

5월 3일에는 풍물야시장(꼬꼬야
시장)이 시민들과 관광객을 찾아간
다. 이달 중 먹거리 매대 15곳을 모집
할 계획이며 주차타워, 화장실, 유아
를 위한 쉼터 등 여러 편의시설도 갖
추고 있다. 가정의 달인 5월에 개장하
는 만큼 가족 친화적인 체험 행사로
꾸며질 예정이다. 야시장은 2016년

쯤부터 춘천시와 지역사회가 주력해
온 관광상품이기도 하다. 번개시장
과 후평야시장 등이 잇따라 호응을
얻게 됐지만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야시장의 명맥도 끊기게 됐다.

코로나19가 잦아든 지난해 춘천시
는 지역내 야시장을 확대하겠다는 계
획을 세웠지만 상인들 간 이견 등으
로 이렇다 할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지난해 후평야시장은 1만2000여 명
이, 풍물야시장 7만여 명이 방문했
다. 야시장이 제대로 된 관광상품으

로 자리를 잡으려면 콘텐츠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보건
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단순히
먹을거리에 그치지 말고 즐길거리가
확충돼야 한다”며 “손님들이 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고 고
객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야간 관광 콘텐츠를
확충, 전통시장을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현 tpagus@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4 03 22 ()

13

삼척 수소특화산업 조성 탄력 기대

정부 지역혁신 공모 예비 선정
확정 시 입주기업 맞춤형 혜택
산업 활성화·일자리 창출 발판

속보=삼척시가 추진중인 ‘수소기업
육성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에 따
른, 관련 사업이 정부의 지방소멸대
응 지역혁신 공모에 예비 선정(본지
3월 21일자 8면)되면서 앞으로 사업
추진 및 성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
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지역혁신
과제를 공모, 삼척시의 ‘수소기업 육
성을 위한 기술사업화 고도화 지원사
업’을 예비 선정했다.

이 사업은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
금과 자치단체 재원으로 수소특화산
업단지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산업
단지에 입주한 수소기업은 중기부 사
업을 통해 상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
한 인증컨설팅, 기업 맞춤형 시장 조
사 등을 지원받아 지역 일자리 창출
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삼척시는
오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근덕면
동막리 812번지 일원 13만 8691㎡ 부

지에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163억원
을 들여 수소특화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지난 2월 강원
특별자치도 산업단지계획 승인심의
위원회 심의 및 승인(고시)이 마무리
되면서 올 상반기 중으로 산업단지 조
성공사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유치 업종은 수소생산 및 저장 제
품, 충전소 상용화 및 세라믹원료 소
재 관련 기업 등으로, 이번 정부의 지
방소멸대응 지역혁신과제가 확정되
면 입주 기업에 대한 맞춤형 패키지
및 기술사업화 사업 등 다양한 지원
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삼척 수소

특화 일반산업단지 경쟁력이 더욱강
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또 수소
기업육성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사
업의 일환으로 앵커기업 임대형 공장
건립사업(50억원)을 진행하고 있으
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연료전지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사업(35억
원)을,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도 수
소전문기업 육성지원사업(3억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수
소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
해 기업유치가 절실한 만큼, 보다 경
쟁력 있는 수소특화산업단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정민

2024 03 22 ()

06

江原日報

필리핀 상춘객, 양양공항 통해 강원도 온다

봄전세기 이용 단체관광객 유치
내일부터 네 차례 620여명 입국

필리핀 단체관광객이 23일부터 전세기를 타고 양양공항을 찾는다. 플라이강원 운항 중단으로 수개월째 개점휴업 상태인 양양국제공항이 모처럼 활기를 띠 전망이다.

21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관광재단과 함께 필리핀 최대 연휴인 부활절 기간 ‘양양~필리핀(마닐라)’ 봄 전세기를 이용한 단체관광객 유치에 성공했다. 23일부터 4월4일까지 4차례에 걸쳐 620여명의 관

객이 양양국제공항을 통해 강원자치도내 관광에 나선다.

도와 한국관광공사, 한국항공공사는 양양국제공항을 통해 첫 항공편이 도착하는 23일 환영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필리핀은 양양국제공항 무사증입국 제도 대상 국가중 하나로 최근 3년(2021~2023년) 누적 방문 관광객이 65만여명에 달한다.

도는 필리핀 전세기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해 올 1월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기간 현지 여행업계 락스트래블(필리핀항공 GSA) 관계자를 초청해 팸투어를 진행하는 등 공을 들여왔다.

필리핀 단체관광객은 2박3일 동안 삼척의 유채꽃, 벚꽃 등 봄꽃 명소와 해양레일바이크를 체험한다. 평창 용평리조트와 발왕산, 한류 촬영지 춘천 남이섬, 강릉의 BTS 버스정류장 등을 방문하며 웰니스 체험도 할 예정이다.

정광열 도 경제부지사는 “양양공항 무사증 입국제도를 통해 강원자치도를 방문하는 필리핀 단체관광객이 머무는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힘쓰겠다”며 “이들을 통해 더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손님맞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속초=정익기기자 igjung@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4 03 22 ()

14

인제군 스포츠마케팅 지역경제 훈풍

대회 60개·훈련팀 70개팀 유치
올 92억원 경제효과 창출 목표
서화실내체육관 완공 등 주력

인제군이 봄철을 맞아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 상경기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군에서는 22일부터 열리는 제50회 회장기 전국 초등학교 탁구대회를 시작으로 오는 4월까지 주말마다 10개 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전국 초교탁구대회는 한국 초등학교탁구연맹과 대한탁구협회 주최, 인제군 후원으로 개최되며, 단체전 42팀과 개인전 74팀 등 570명의 초교 선수가 참가한다.

이어 4월까지 △하늘내린인제 전국 꿈나무테니스대회 △제43회 대한 축구협회장기 전국 축구대회 △하늘내린인제 전국 남녀 중고배구대회 등 대규모 대회가 열릴 예정이며, 대회 기간 동안 8200여명 선수가 인제를 방문할 것으로 보여 지역 경기에 활기가 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은 이달 현재까지 하늘내린인제 전국 중고 배구 V리그 등 5개 대회에서 3290여명이 지역을 방문했으며, 배드민턴 국가대표 꿈나무선수 등 18개팀에서 394명의 선수들이 전지 훈련을 가졌다.

군은 2024년에는 전국·도단위 스포츠대회 60개, 전지훈련팀 70개팀 유치, 지역방문객 4만 7500명과 92억원의 경제효과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은 스포츠마케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통체육문화센터·기린실

내체육관·인제라이딩센터·인제전지훈련센터 등 스포츠 시설의 활용과 함께 2024년 서화실내체육관, 2026년 인제종합운동장 완공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권현주 군 스포츠마케팅 담당은 “방학기간과 동절기에는 전지훈련과 스토브리그, 전국 단위 스포츠대회는 연중 개최한다는 전략”이라며 “스포츠마케팅과 지역상경기 활성화를 2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스포츠마케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in@kwchina.net

강원도민일보

2024 03 22 ()

04

강릉 오락가락 날씨에 꿀벌 60% 폐사...양봉농가 시름

꿀벌들이 왕성한 활동을 해야 할 봄철에 추위와 더위가 반복되는 날씨의 영향으로 집단 폐사 현상이 나타나 양봉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강릉시와 시 양봉협회에 따르면 최근 지역 270여 양봉 농가에서 키우고 있는 꿀벌 1만4000군(1군당 2만마리)이 날씨의 영향으로 60%가량이 폐사(실종)됐다. 폐사된 꿀벌만 1억5000마리 이상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같은 꿀벌 집단 폐사는 대부분의 농가에서 발생, 절반 이상 벌통이 텅텅 비어 있어 농가들이 허탈해하고 있다.

꿀벌들이 폐사하고 있는 이유는 날씨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벌들이 기온 상승으로 벌통을 나와 멀리 24km까지 날아갔다 되돌아 와야 하는데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비행을 못해 폐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4년째 이어지고 있어 농가의 시름은 더 커지고 있으며 일부 양봉농가는 꿀벌 키우기를 포기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강릉지역은 지난 2월 한달 눈과 비가 온날은 16일에 이르고 해가 난 맑은 날은 3일에 불과해 꿀벌들이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일에도 눈이 내리는 등 이상 기후가 지속돼 꿀벌 폐사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홍성배

강원도민일보

2024 03 22 ()

/ 19

청년세대 의료교육 기회 더 넓히길

-지역 국립대병원 및 의대 후속 정부지원책 속히 발표해야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증원에 따른 대학별 배정이 완료되면서 또 다른 과제가 강원을 비롯한 비수도권을 압박합니다. 강원을 비롯해 비수도권에 배정된 1639명이 예과, 본과, 수련 교육을 마치고 배출됐을 때 얼마나 지역에 남아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입니다. 정부는 지역인재 전형률을 60%로 늘리고,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의대 입학 단계부터 장학금, 수련비등을 지원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제도만으로는 수도권으로의 의의사 이탈을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특히 이탈률이 높은 강원도의 경우 거점국립대인 강원대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승격을 비롯해 수준 높은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근본 조치가 병행돼야 효과적이라는 지적입니다. 신현영 국회의원도 공개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2014~2023년) 사이 의대 졸업 후 그 지역 이탈률은 수도권 의대는 2.6%에 불과한 반면 강원은 무려 73.7%를 기록했습니다.

더욱이 병원 신설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이후 수도권에 6600여개의 병상수 증가가 예고되어 있어 의료인력 이탈을 더 부채질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역의료 현장에서 부닥치는 업무과중 및 열악한 설

비등 여러 문제점이 빠르게 개선되지 않으면 그 지역 출신이라고 해도 고향에 남아 진료에 몰두하기 어렵습니다. 의대생들이 지역대학병원 교수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다 봤는데 지역에 남겠다는 학생이 있을 수가 없다는 현장 의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강원에서 이탈률이 높았던 데는 수도권과 가깝다는 이유 외에 열악한 의료환경이 큰 요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의대 졸업생 수 대비 인턴 정원이 적은 지역일수록 졸업 후 타 지역에서 인턴 근무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에서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을 필수 의료 중추로 육성하고 사립대병원도 협력해 중증·응급의료의 지역완결성을 높여겠다고 밝혔습니다.

빈말이 되지 않으려면 후속 정책을 속히 제시해 일각에서 걱정하는 의료교육 질 저하 및 증원 효과 논란을 잠재워야 합니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 등에서 2035년 까지 의로서비스 충족을 위해 최소 1만명 의사 확충안이 나온 데다가 의과학 자양성 및 의료·바이오산업 연구인력 확대가 요구되는 만큼 젊은 세대에 대한 의료교육 기회를 더 넓히는 중장기 책도 구체화돼야 정책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江原日報

2024 03 22 ()

/ 25

의대 정원 증원, 지역의료 혁신 계기로 삼아야

정부가 기존보다 2,000명 늘어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을 공식 발표했다. 강원대, 한림대, 가톨릭관동대, 연세대(원주) 등 강원지역 의대 4곳의 정원은 165명 증가한다. 현재 267명인 강원지역 4개 의대 정원이 2025학년도부터 432명으로 1.6배 늘어나는 것이다. 의과대학 정원이 확대되는 것은 1998년 이후 27년 만이다. 교육부는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3대 배정 기준을 토대로 정원을 나눴다고 밝혔다. 비수도권 중심 의대 정원 조정은 수도권·비수도권 의료 격차 해소와 의료 여건 편차 극복이 주요 기준이다. 지역에서는 의료서비스 개선 및 지역인재들의 의대 진학 폭이 넓어졌다고 환영하며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타개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료인 부족은 그동안 수많은 논쟁을 불러왔다. 당장 서울과 수도권으로 의료인이 몰리면서 지방에서는 의료 공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위급환자를 받을 수 없어 길바닥에서 사망하는 '응급실 뺑뺑이' 사고가 발생하고 산부인과, 소아과 등 병원을 찾아 몇 시간씩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향후 10년 후에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의료인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가 의료 현장의 혼란 위험을 무릅쓰고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제 과제는 의대 증원과 관련해 우려되는 시설, 교수 및 연구여건 확충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양성된 유능한 의사 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어야 지역의료 혁신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

앞으로 대학들은 학칙을 개정하고 의과대학 정원을 반영한다. 이어 5월 말쯤 '2025학년도 대입전형 수시모집요강'이 공고된다. 의료계가 실력 행사를 한다고 의대 증원 방침을 막을 단계는 지나갔다. 전공의 등은 의료 현장에 속히 복귀해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지역의 의료체계 혁신 방향 등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국가의 의료대계를 위해 의사들도 정부, 도민과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이번 조치는 의료개혁의 시작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은 저출산·고령화와 지방소멸의 탈출구가 될 것이다. 지금부터는 의대 교수와 전공의 등 의료계가 의료개혁의 핵심인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실행 방안 마련에 집중해주기를 바란다.